

송대극회 제 10회 공연



(The Room)

H. 핀터 作 신 정옥 譯

1973. 10. 25(木)·26(金) P.M. 7:00

27(土) P.M. 3:00/ 7:00

송 전 대 학 교 대 학 극 장

송  
대  
극  
회

\* 公 演 年 譜 \*



H · PINTER

	年 度	作 品 名	演 出
1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 태 주
1	1969년 10 : 10	"의 자 들" 이오네스코 작	이 태 주
3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 봉 인
4	1970년 5 : 15	"뫼츠의 샘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 영 재
5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뮤엘 · 베케트 작	김 양 기
6 回 演 劇 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 종 화
		진년목 삽화 *	주 정 서
		윤 조 병 작 *	한 영 재
		담배 해독에 對해서 안본 · 제후 작 *	유 근 배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터스 작 *	차 현 재
		고도를 기다리며 사뮤엘 · 베케트 작	
7	1971년 11 : 4, 5	저격병의 그림자 산 · 오케이시 작	차 현 재
8	1972년 5 : 25, 26, 27	생 일 파 티 * H. 핀터 작	한 영 재
9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뤼엔마트 작	고 봉 인



"The Room"에 부쳐

총 장 이 한 빈

송진전은 자기표현을 중요시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본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극회에서 헤롤드·핀터(Herold Pinter)작 「The Room」을 공연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연극은 종합예술로서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표현수단과 기량을 총동원하여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이다. 우리 송전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간성에 대한 통찰과 사회에 대한 관찰과 또 삶의 목적에 대한 성찰을 결합하는 종합적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의 교양을 높이는 면에 있어서나 인격을 도야하는 면에 있어서도 꼭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지식인들은 전통적으로 솔직한 자기표현을 억제해온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유교적 전통이 공식화한 예악을 숭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래서 비교적 적나라한 표현양식은 오히려 서민생활면에서 많이 나타나곤 하였다.

지금 송전의 마당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미래의 개방사회의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이다. 그들이 능숙한 자기표현의 소양을 도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매우 귀중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공연이 좋은 성과를 내어 출연하는 젊은이들에게 보람이 되고 송전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 STAFF

기획 : 김득남(社 3)

연출 : 차현재(哲 4)

조연출 : 안홍순(文 1)

장치 : 김선일(社 4)

김계철(史 3)

효과 : 방영철(전자1)

조명 : 신영배(전산2)

의상 : 김순옥(전산2)

소도구 : 홍윤옥(文 1)

분장 : 김영미(英 2)

곽은영님



김선일



김영미



방영철



김계철



홍윤옥



안홍순

■ CAST



버어트 허드/김득남



로오즈/강경례(化1)



키드/김성은(法1)



샌즈/안홍택(文1)



샌즈부인/장미혜(文1)



라이리/정치영(機3)



「나의 방」 그리고

「너의 방」

지도교수 李 泰 柱

大學에서의 演劇은 作品選定, 作家선택, 그리고 主題의 追求에 있어서 一貫性이 있어야 한다. 大學의 生命이 그러하듯이, 大學 內에서의 活動은 꾸준한 研究의 바탕 위에 모든 것이 수립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集中的인 研究의 結果로서 的 演劇이 期待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大學劇 뿐이다.

英國의 現代劇作家 해롤드·핀터는 崇大劇會가 그동안 꾸준히 追跡해 온 作家이다. 이제 그의 作品 「방」을 公演하는 意義는 바로 이런데 있다.

여러분들은 暮이 오르면 어느 한 家族의 「방」에 直面할 것이다. 그 「방」은 폐와 場所를 초월하여 「나의 방」이 될 수 있고 「너의 방」이 될 수 있으며, 또 그 「방」이라는 것이 人間存在의 한 狀況이라는 點에서 이 作品은 多分히 象徴的이며, 人類 共通的인 것이다.

人間이란 따지고 보면, 時時刻刻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人間은 宿命的으로 공포에 떨게 된다. 이 작은 人間의 「방」이 받는 外部로부터의 충격에 對해서 人間은 그 「방」 속에서 어떤 對決意識과 方法으로 反應할 것인가. 이번 公演의 舞台는 그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번 公演을 可能케 해주신 여러 先生님들께 감사드리며 劇會員들의 헌신적인 熱意에 거듭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부족함을 느끼면서

극회장 김 득 남

부족하기에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족을 메꾸기 위해 뛰었지만 결과는 부족투성이인 나를 보게 한다.

부족을 인식치 못 할때 복잡해지며 복잡은 멧과 순수함을 뺏어 버린다.

부족을 회피하기에 우리는 너무 젊고 어리다.

젊음에 우리의 능력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다. 부족은 더욱 재찍질을 하였다.

이 연극을, 애써주신 여러분께 머리숙여 바친다. 우리 모두에게도.

모진 비바람을 맞은 땅이 굳게 다져지듯 올해는 비바람이 더욱 모진 해였다.

내년 봄 11회를 기약드리며.....



차 현 재(哲 4)

### 연출말

#### 記 IV (변명)

연극이란건 정말로 하기 싫은 것. 도대체 뭐가 편지 알 수 없는 미물 같은 것. 하면 할수록 더 마분해지고 싫증만 느껴지는..... 그런데두 할게 있으니 팬스리 예술입네 하고, 예술가 인척, 우쭐거리는 나 자신.

순 영터러다!

이런 섀티멘탈한, 소위 연출말 이란 것두.

#### 記 V (.....)

새가 새장에서 밖으로 나가려한다.

발톱이 꺾어지고 부리가 상한다.

포기.

체념.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웃점 없이

밖을

바라 볼 뿐이다.

### 작 품 해 설

신 정옥 (역사·명지대학교수)

「방」은 핀터의 작품에서 흔히 반복되는 모티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핀터의 작품중 「방」은 그의 희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시적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핀터의 희곡적 발상이며 기본적 주제이기도 하다. 「THE DUMB WAITER」 「THE BIRTHDAY PARTY」 「THE CARETAKER」 그리고 최근작인 「SILENCE」의 작품 주제들도 모두가 처녀작인 「THE ROOM」의 기본 주제에서 파생되었고 확대, 심화시킨 것이라고 보겠다.

핀터 역시 베케트나 이오네스코 처럼 전통적인 연극형식에 대담한 도전과 부정을 시도하여 자기 나름대로 무대의 새로운 약속을 창조했고 현대적 사상의 변화를 냉혹하게 표현한다. 어느 비평가가 「방안에 있는 두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방안에 있는 두 사람은 확실히 방밖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부세계는 그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어두움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공포는 당신이 나나 매한가지입니다.」하고 핀터가 대답했듯이 「방」의 여주인공 로오즈에게는 방이 그녀의 피난처이며 자기보장의 장소이다. 거울처럼 냉냉하고, 습기에 차고, 지지분한 로오즈의 방일 망정 그녀에게는 안식처로 여겨지며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항상 냉혹하고 어둠에 싸여 있는 두려운 곳이다. 그래서 로오즈를 찾은 흑인은 로오즈에게 하나의 위협으로 상징된다. 다시 말해서 핀터는 외부세계를 무한한 공포(실존의 부조리)로 보고 있다. 「방」이야말로 우리의 의식이며 존재의식이다.

